

# 2019 서순실 심방 본풀이 채록

## 문전본풀이

문전본풀이>들어가는 말미

일문전 하나님 난산국에<sup>1)</sup> 본 풀정<sup>2)</sup> 험네다.

문전본풀이>본풀이

옛날이라 옛적에 남선고을 남선비가 살읍데다. 여산고을 여산고을 부인님이 사난 부베간(夫婦間)을 맺으난, 아덜은 낳는 게 일곱 성제(兄弟)<sup>3)</sup> 나난, 일곱째 아덜은 녹두쟁인으로 이름을 지왔구나. 그 해에 농수를 지난 흉년(凶年)이 들었구나. 허를날은 남선비가~,

“설운<sup>4)</sup> 아기덜아, 아버지 옥지장사 강 오크메<sup>5)</sup>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꽃을<sup>6)</sup> 도올랑<sup>7)</sup> 올 곧은 남,<sup>8)</sup> 실 곧은 남 비어당<sup>9)</sup> 베나 허나 멘들어 도라.”<sup>10)</sup>

“어서 기영<sup>11)</sup> 험서.”

일곱 성제가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꽃을 도올랑 올 곧으고, 실 곧은 남 비어당 베를 허나 멘드난, 전베독선(全一獨船) 실었구나. 장젓맛이 벨코사<sup>12)</sup> 방구삼체(放鼓三次)<sup>13)</sup> 둥둥 울령 파도치어, 절치어<sup>14)</sup> 가명, 가명 가는 것이 오동나라 오동고을이 당험데다. 선창(船艙)에 닻<sup>15)</sup>을 무건 삼부릿줄<sup>16)</sup> 줄싸메난 동이맞이<sup>17)</sup> 네립데다. 노일제데귀일이 툇 깍치메<sup>18)</sup> 앞이 입언 내려오란,

“선주(船主)님아, 선주님아, 우리 집이 선주집을 무읍서.”<sup>19)</sup>

“어서 기영 험서.”

노일제데귀일이 툇 집이 간 선주집을 무엇구나. 그날로부터 바둑 장기 노념놀이<sup>20)</sup> 헤여 가난, 풀아 먹는 것이 전베독선 다 풀아 먹어 간다. 노일제데귀일이 툇 첩을 삼아 가는구나. 나

1) 난산국: 본디 태어난 곳과 그 내력.

2) 풀정: 풀려고.

3) 성제: 형제.

4) 설운: 서러운.

5) 오크메: 올 테니.

6)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꽃: 깊은 산을 뜻함.

7) 도올랑: 올라서.

8) 남: 나무.

9) 비어당: 베어 다가.

10) 멘들어 도라: 만들어 주라.

11) 기영: 그렇게.

12) 장젓맛이 벨코서(別告祀): 장젓맛이 별고사는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 바치는 고사를 말하는데 이는 선왕신(船王神)인 영감을 대접하는 뜻.

13) 방구삼체(放鼓三次): 방고삼차(放鼓三次). 북을 세 번 둥둥치는 것으로 출항신호.

14) 절: 물결(波).

15) 닻: 닻.

16) 삼부릿줄: 세 갈래로 나누어 묶어 고정하는 줄.

17) 동이맞이: 베동이맞이 배를 맞이하는 어린 종.

18) 깍치메: 풀치마.

19) 무읍서: 묶어 가십시오.

20) 노념놀이: 놀음놀이.

중엔 먹을 거 엇어가난 탄 간 베??지 풀아 먹으난, 남선비 화가 올르난 앞눈이 어둑엇구나. 덩들봉사가 뉘난에 피조리 초막(草幕)살이<sup>21)</sup> 돌쩌귀 거적문<sup>22)</sup>을 달안 잇이민 쳃죽이라도<sup>23)</sup> 넘어가는 계(犬) 먹어불카부덴<sup>24)</sup> 다우리명<sup>25)</sup> 살앗구나.

남방국에선 남선비 나 가건덴 연삼년(連三年) 뉘어도 소식(消息) 기별(寄別) 엇엇구나. 그 헤에 농술 지던 풍년이 드난에 여산국이 부인님은 이 밤, 저 밤, 야삼경(夜三更) 뉘어가민 상동낭 용얼레기<sup>26)</sup> 춤실 일곱 발 무경 이 밤, 저 밤, 깊은 밤중 저 바당에 강 들이치명,

“낭군님아, 설운 낭군님아, 가다건 바당에 베 파산 뉘영 죽엇걸랑 상동낭 용얼레기 머리카락 올라오곡, 살앗걸랑 소식 기별 들게 헤여 줍서.”

일뤼제<sup>27)</sup> 뉘는 날 용얼레기 건전 보난 머리카락 혼정 아니 올랐구나에~.

“설운 아기들아, 니네 아방 좃앙오크메 아방 탄 간 거 7치 베나 허나 멘들어 도렌.”

허난, 일곱 성제가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꽃을 도올랏구나. 올 곤은 남, 실 곤은 남 비어단 베를 멘드난 뜻을 올렸구나~. 일곱제 녹두생인안티 곤는 말이,

“나 아덜아, 어멍 갈 적에 요 듯 돌고, 니네 아방 좃앙 올 때도 요 뜻을 둘앙 오민, 니네 어멍인줄 알고 다른 뜻을 둘앙 오민 니네 어멍 아니엔.”

녹두생인안티만 곶아 두곡, 장전맛이 벨코스 방구삼제 동동 올리난 파도치어 절치영 가명, 가명 가는 것이 오동나라 오동고을은 당헤엇구나. 선창에 베슬 닷을 묶엇구나. 지장밧디를<sup>28)</sup> 넘어가난 지장밧디 세<sup>29)</sup> 돌리는 얘기들이,

“이 세, 저 세, 너무 옥은 체<sup>30)</sup> 말라. 밥주리<sup>31)</sup> 옥은 세도 아이 놓은 그물에 들고, 남선비 옥은 간에도 노일제데귀일이 풀 호탕 넘언, 전베독선 다 풀아 먹고, 앞눈봉손 뉘어 앓았구나. 주어~ 저 세~.”

여산국 부인님이 지장밧디 들어간다.

“설운 아기들아, ګ사<sup>32)</sup> 노래 흥 곡지만 더 불러도라. 니네 머리 위에 갑사(甲紗)뎡기 드러 주멘.”

허난, 다시 흥번 불러주엇구나. 머리에 갑사뎡기 드러주고,

“그딜 가젠 흥민 어딜 가느니?”

“요 제 넘읍서. 저 제 넘읍서. 가당 보민 피조리 초막살이 돌쩌귀 거적문을 달안 잇우덴.”

허난, 요 제 넘고, 저 제 넘고 가단 보난 피조리 초막살이 돌쩌귀 거적문 달안 잇구나.

“주연 잇거든 나그네 무어서 봅서.”

“아이고 요레<sup>33)</sup> 바레 봅서. 어디랑 주인 자고 어디랑 나그네 잡네까?”

“난 디 사람 집을 지영 납네까? 밧을 지영 납네까? 정제 구석이라도 빌려 줍센.”

허난, 정제 구석을 빌려 주엇구나. 정제 구석 빌려 주난 밥이나 헤영 먹젠 웨말치<sup>34)</sup>를 올언

21) 피조리 초막살이: 보잘 것 없는 초막살이.

22) 거적문: 문짝 대신에 거적을 친 문.

23) 쳃죽: 겨죽.

24) 먹어불카부덴: 먹어 버릴까 봐.

25) 다우리명: 쫓으면서.

26) 상동낭 용얼레기: 상동나무로 만든 얼레빗.

27) 일뤼제: 이레째.

28) 지장밧디를: 기장 밧에를.

29) 세: 새.

30) 옥은체<sup>30)</sup>지: 약은척하지.

31) 밥주리: 참새.

32) ګ사: 아까. 금방.

33) 요레: 여기를.

보난, 맨날 찻죽만 쑤어먹어 나난 찻죽이 잇구나 앞뵈디 놀려든다. 뒷뵈디 열려든다. 옆뵈디 놀려들언 삼수세기<sup>35)</sup> 견어단 솟을 복복허게<sup>36)</sup> 싯쳐뵈<sup>37)</sup> 갓영 간 쓸을 난 밥 혼상을 찰려근,<sup>38)</sup>

“주인아지바님아,<sup>39)</sup> 주인 모른 나그네가 잇읍네까? 이 밥을 먹읍센.”

허난에~, 첫 수꾸락 들르난 목이 메엇구나.

“아지바님아, 옛말이나<sup>40)</sup> 곱아 봅센.”

“옛말도 모릅네다.”

“본말이나 곱아 봅서.”

“본말도 모릅네다.”

“아지바님 살아온 정네(情理) 생각허멍 곱아 봅센.”

허난,

“나는야 남방국의 남상국이고~, 우리 집 부인은 여산국이 부인이고, 아덜 입굽 성제 난 가난헤언 육지장사 오랏단 노일제데귀일이 톨 호탕에 넘언 전베독선 다 풀아 먹영, 핫짐에 앞눈 어둑언 가도 오도 못헤영 영 앳앳우덴.”

허난에,

“낭군님아 ,낭군님아, 나가 여산국입네다. 낭군님 좃안 오랏우다.”

똥똥 훑목<sup>41)</sup> 심언 만단정활(萬端情懷) 이루노렌 허난~, 노일제데귀일이 톨 동네잔치집이 간 심부름 헤언 깍치메에 찻죽 혼 적 밥 빌어 오단 후허게 던지멍,

“아이고 요눔, 저눔, 죽일 놈, 잡을 놈. 날랑 놈이 집이 강 눈치밥 먹으멍 찻죽이라도 멕이 단 보난 지나가는 술간나이<sup>42)</sup> 놓안 노념놀이 헤염구나.”

“아이고 설운 정네(情女)야, 이리오라. 남방국에른 우리 큰부인이 나를 좃안 오랏구나.”

“아이고 성님아, 성님인줄 알앗이민 무사 후욕노욕(詬辱怒辱) 험네까~? 나 송(凶)보지 맏서 예~.”

“웁서. 성님아, 오젠 헤난 똥넨들<sup>43)</sup> 아니 납네까? 연네뭏디 몸 모욕(沐浴)가게.”

몸 모욕가난 옷을 벗언 앳앳구나.

“아이고 나 동싱(同生)아, 이리 오라. 니 등을 밀어주마.”

“아이고 나 성(兄)님, 우으로 비운 물이 발등더레 떨어져도 알로<sup>44)</sup> 비운물이 머리 우터레<sup>45)</sup> 올릅네까? 설운 성님부터 모욕헨 나 등을 밀어 줍센.”

그 말도 들언 앳앳구나. 노일제데귀일이 톨 앞이 간 등 돌아 앳이난, 물박으로 물을 떼 혼 번, 두 번 헤단 떼 미는 체 허단, 물더레 가락허게<sup>46)</sup> 걸려볼엇구나~.<sup>47)</sup> 여산국이 부인님 감테

34) 웨말치: 한 말들이 솔.

35) 삼수세기: 한삼덩굴.

36) 복복허게: 무엇을 말끔하게 없애는 모양.

37) 싯쳐뵈: 씻어두고.

38) 찰려근: 차려서.

39) 아지바님: 여자가 동기(同氣) 이외의 순위의 남자를 높이어 부르는 말.

40) 옛말: 여기서는 ‘살아온 내력’을 의미함.

41) 똥똥 훑목 심언: 따뜻한 손목 잡고 .

42) 술간나이: 여기서는 ‘근본 없는 여자’ 정도의 뜻.

43) 똥넨들: 땀 냄새인들.

44) 알로: 아래로.

45) 우터레: 위로.

46) 가락허게: 세차게 미는 모양.

47) 걸려볼엇구나: 걸어 밀어버렸구나

(甘苔) 7픈 절박머리<sup>48</sup>) 골골산산 흠어 노멍 물 알더레 7라앗앗구나.<sup>49</sup>) 노일제데귀일이 푼은 이녁<sup>50</sup>) 옷은 벗어두고, 여산국이 옷으로 문탁 굴아입언 집이 가,  
 “아이고 낭군님아, 낭군님아, 그년, 저년 행실이 귀썸현 죽여똥 오랏우다. 그년이 누게파?”  
 아이고 노일제데귀일이 푼, 행실이 귀썸현 죽여똥 오랏우덴 허난,  
 “아이고 잘 죽였저. 나 앞눈 어둔 거 그년 덕분에 어둑엇덴.”  
 허난, 노일제데귀일이 푼이 곤는 말이,  
 “아이고 낭군님아, 읍서. 이제랑 우리들 애기들 좃안 남방국더레 가게~.”  
 베 진 곳 알 돌에 네렛구나~. 베에 닳을 걸언근에 돛을 다른 걸로 돌아 간다. 남방국더레 들언 오라가난 물머리에 산 보난 아기덜,  
 “우리 어멍 강 아방 좃앙 오람구나.”  
 큰아들은 망건(綱巾)벗어 드릴 놓고, 둘째 아덜 저고리 벗언 드리 놓고, 셋째 아들은 바지 벗언 드릴 놓고, 네 번째 아덜 행경(行纒) 벗어 드릴 놓고, 다섯번째 아덜 보선 벗어 드리 놓고, 요섯째 아덜 두루막 벗언 드리 놓고, 일곱째 똑똑하고 영력한 녹디생인 곤는<sup>51</sup>) 말이,  
 “우리 어멍은 아니우다.”  
 “어떻헌 알아질티?”  
 “어멍이 갈 떼 돛을 들멍 나 올 떼민 이 돛을 들앙 온덴 허엿인디, 온 건 보난 그 돛을 아 니 들안 다른 돛을 들앗우다. 우리 어멍 아닙네다.”  
 칼선다리<sup>52</sup>) 놓앗구나~. 칼선다리 놓안근 베에서 네렛구나.  
 “어머님아, 어떻게헌 우리 어멍 얼굴이 아니우다.”  
 “아이고 나 아기덜아, 니네 아방 강 좃아오젠 헌 게 배멀미가 나앗구나. 수절기(水疾氣)가<sup>53</sup>) 나앗구나. 아이고 얼굴도 변헤엿구나.”  
 “경 흐파? 걸읍서.”  
 가단 골목에 오난 이 골목도 주악,<sup>54</sup>) 저 골목도 주악,  
 “어머니, 무사 우리 골목 못 좃임이파?”  
 “니네 어멍 멀미 헤염시네.”  
 “이레 들어 걸읍서.”  
 들어간다~. 이 올레, 주악 저 올레 주악허난.  
 “무사 우리 올레 못 좃암수과?”  
 “니네 아방 좃아오젠 헌 게 배멀미가 나앗구나.”  
 핑계만 잡아간다.  
 “집이 강 밥헉서.”  
 밥헤헌 행 건 보난, 아방 받던 밥은 족은아들안티 가고, 족은아들 밥상은 아방안티 가고, 밥 사발도 바꾸고, 수꾸락도 바꾸고, 국사발도 바꾸난 아기들은 투런투런<sup>55</sup>) 헤엿구나. 녹디생인

48) 절박머리: 결이 좋은 머리. 동래의 오구곳에서 불리는 <바리공주>에서도 “손에 찌는 옥지환 반달같은 절방머리”라고 하는 표현이 쓰인다. 흥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形成과 展開” 『구비문학연구』 제집(한국구비문학회).

49) 7라앗앗구나: 가라앗앗구나.

50) 이녁: 자기.

51) 곤는: 말하는.

52) 칼선다리: 칼날이 위로 향한 모양.

53) 수절기(水疾氣): 뱃멀미.

54) 주악: 기웃. 갈팡질팡 헤매는 모양.

55) 투런투런: 이해할 수 없어 의아한 모양.

곧는 말이,

“요거 봅서. 우리 어멍은 절대 영 안 험니다. 우리 어멍 아니우다.”

뜻날은 남선빈 올레에 나가불고, 이 아덜 일곱 성젠 초신 삼으레 가부난 방 안에서 생각허난,

‘요것들 눈치 알앗구나. 요것들 눈치 아난 이녁 어멍 아니른 날 죽일로구나.’

남선비 들어올만허난 각진장판에<sup>56)</sup> 둥굴어<sup>57)</sup> 가는구나.

“아이고 베야.<sup>58)</sup> 아이고 베야. 아이고 베여. 아이고 베 아팡 죽어지켜.”

남선빈 어둑은 눈에 들어오단,

“아이고 부인님아, 이거 어떻게한 일이파?”

“아이고 낭군님아, 나 몸에 병이 낫우다.”

“아이고 어떻게민 좋고?”

“약 먹어도 아니 좋음직허우다.”

“어떻허민 좋크라?”

“옆집이 김정시안티<sup>59)</sup> 강 문복단점(問卜斷占) 지영 읍센.”

올레로 나가분 세에, 올담 념영 먼저 강 김정시안티 곧는 말이,

“우리 집 서방 오랑 나 신병은 절대 약 먹어도 아니 좋고, 아들 일곱성제 죽영 애<sup>60)</sup> 네영 먹켄, 요 말 험 마디만 골아 줍센.”

언약을 헤여 두엇구나. 나오 노렌 허난 남선비 어둑은 눈에 들어온다.

“어떻헌 읍데가?”

“아이고 우리 집 큰부인이 아판 오랏우다.”

단수육갑(單數六甲) 지평 곧는 말이,

“약 먹어도 안 좋구다.”

“어떻허민 좋쿠과?”

“아덜 일곱 성제 애 네영 먹어사 좋쿠편.”

허난,

“아이고 요거 무슨 말인고? 이 아기들 죽이렌 험 말이 뭇 말이리.”

어둑은 눈에 올레로 터덕터덕 걸연 들어온다. 남선비 오라가난,

“아이고 베야. 아이고 베여~.”

마리<sup>61)</sup> 구석, 청방<sup>62)</sup> 구석 난간더레 조악하게 앓안,

“아이고 계난 무시 거엔 곱데가?”<sup>63)</sup>

“아이고 가난 아덜 일곱 성제 죽영 애 네어 먹어사 좋켄.”

허난,

“아이고 낭군님아, 이거 어떻게한 일이파? 죽으믄 죽으주 난 그 애기들 죽영 아니 살아났쿠편.”

56) 각진장판에: 유기름 칠한 좋은 장판에.

57) 둥굴어: 뽕굴어.

58) 베야: 배(腹)야.

59) 김정시안티: 김지관에게. ‘정시’는 지관(地官).

60) 애: 간(肝).

61) 마리: 마루.

62) 청방: 창방. 마루와 부엌 사이에 있는 작은 마루.

63) 곱데가: 말합니까.

거짓치 안 허게 손가락에 춤 불란 눈물 나는 책 헤여가명,

“아이고 낭군님아, 아니 뿔직허우다.”

“어떻허민 좋크라?”

“긱사<sup>64</sup> 소문 들으난 삼도전<sup>65</sup> 세커리에 멩텅이<sup>66</sup> 쓴 점쟁이 잇덴 험디다. 그디 가근에 들 어뵤 오랑 애기들 죽연 애 네어 먹연 나 살아나민, 나 혼 배(腹)에 세 쌍둥이씩 나 세 번만 나민 아흠 성제가 될 거 아니꽈?”

“아이고 그 말도 드난 맞다.”

남선비 어둑은 눈에 먼 올레 난다. 나가부난 굴목에 간 멩텅이 갓언 셋담으로 헨 셋질로 와 라치라,<sup>67</sup> 와라치라 간 삼도전 세커리에 멩텅이 썩 앓앗구나. 남선비 듯 넘어가거난,

“어디레 가는 아지바님이우꽈?”

“아이고 난 우리 집 부인님 아판 여기 멩텅이 쓴 점쟁이 잇덴 허연 문복지레 오랏우다.”

“아이고 요레 읍서. 나가 멩텅이 썩 앓앗우다.”

단수육갑(單數六甲) 오용팔괘(五行八卦) 지평 하는 말이,

“아니 뉘쿠다.”

“무사 말이꽈?”

“아들 일곱 성제 잇우과?”

“잇우다.”

“죽영 애 네영 먹영 살아사 나쿠덴.”

허난, 이 말을 들으난 남선빈 기가 맥헛구나. 어둑은 눈에 터달터달 집더레 온다. 멩텅인 들 러 데껴두고, 셋질로 셋돌담 튀영 집에 오란 앓안 아이고 구석구석 둥굴어 가명 울어간다. 남 선비 오랏이난,

“강 읍데가? 아이고 가난 무시 거연 곧디가?”

“흔 말에 지어렌.”<sup>68</sup>

허난,

“흔적 험서.”

창고에 간 창도(長刀)칼을 네고 놓고, 근 7세 신돌<sup>69</sup> 놔 슬강슬강 칼을 굴아간다. 옆집이 청타고 마고할말 저녁밥 허젠 천분체<sup>70</sup> 들렁 불 빌레 오랏구나.

“아이고 남선비야, 아덜들도 잇인디 무사 어둑은 눈에 그 칼을 굴암시니?”

“아이고 할마님 모르는 소리 맏서.”

“사실이 영 뉘우덴.”

허난, 할망은 갑자기 천분체 들러 데껴두고, 아덜 일곱 성제안티 간 보난 웃음벨탁들을<sup>71</sup> 헤염구나.

“아이고 아기들아, 니네 어멍 아판 니네 아방 문점 지난, 니네들 죽영 애 네영 먹어서 산덴 허난, 니네 아방 죽이젠 니네 아방 칼 굴암서렌.”

64) 긱사: 금방.

65) 삼도전: 세 갈래로 난 길.

66) 멩텅이: 망태기.

67) 와라치라: 고관의 행차 때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

68) 흔 말에 지어렌: 다시 점을 쳐도 같은 점괘가 나온다고.

69) 신돌: 숫돌. 칼이나 낫 따위의 연장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

70) 천분체: 부채.

71) 웃음벨탁들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큰 소리로 웃는 것을.

허난, 비세 ㄱ치<sup>72)</sup> 울어간다. 일곱체 아들 곧는 말이,

“나 성님아, 나 성님들 요거 봅서. 우리 어멍은 죽으믄 죽어볼주. 우리들 죽영 살아나지 안  
헵네다. 읍서. 가게. 올민 해결 뵈네까?”

성님덜 데런 오란 올레에 세와 두곡 안에 간,

“아버지, 무사 우리 네버된 아버지가 이 칼을 굴미짜?”

사실 말을 ㄱ난,<sup>73)</sup>

“아버지 잘헤엿우다. 아긴 따시 나민 메기<sup>74)</sup> 아니짜만은 부몬 다시 가민 못 읍네께. 경 허  
주만은 아방 속으로 난 애기 어멍 일곱 번을 죽이고, 애를 어멍 일곱 게 네고 묻어 주젠 해도  
일곱 구덩이 흑 흑 삽씩 덮어주젠 해도 일곱 삽 아버지 어둑은 눈에 안뵈네다. 그 칼을 나 주  
건 나가 성님들 애 네영 오랑 어멍 먹영 아니 뵈거들랑 나 하난 죽이는 게 어땡허짜?”

그 말도 들은 맞앗구나. 칼을 네어 준다에~. 그 칼을 가전 먼 올레 나산,

“설운 성님들아, 읍서. 읍서. 가게~. 읍서. 가게~. 건삼 ㄱ튼<sup>75)</sup> 지레<sup>76)</sup>에, 노용삼<sup>77)</sup> ㄱ튼 고  
운 얼굴, 서산베옥(西山白玉) ㄱ튼 양지<sup>78)</sup> 관디청<sup>79)</sup> 눈물이로구나. 주옹아방<sup>80)</sup> 연주지던 비세  
ㄱ치 올명.

“멧천 ㄱ튼 하늘님아~, 멧천 ㄱ튼 하늘님아~, 어멍, 어멍, 우리 어멍, 혼정 잇건 우리 일곱  
성제 죽을 일이 잇우다.”

허난,

“어멍 우리 일곱성제 살려줍센.”

허멍, 비세 ㄱ치 올명 올라가단 보난 헤는 열락서산(日落西山)에 다 지언 이 밤, 저 밤은 뵈  
엇구나. 어욱페기<sup>81)</sup> 으지한 일곱 성제가 으지헤연 무정눈에 즘을 자난 어멍이 선몽(現夢)헌다.

“노리각녹(角鹿)이 네렴시난 혼적<sup>82)</sup> 일어나라. 노리각녹을 죽이젠 헤민 바른말 혈꺼여. 혼저  
일어나라~.”

일어난 보난 꿈이로구나. 올라 가단 보난 노리각녹이 네린다. 노리각녹을 죽이젠 허난,

“날 죽이지 말라. 난 산신령이여. 나 뒤에 산툃<sup>83)</sup> 일곱 마리 오람시난 혼 ㄱ리랑 씨종존<sup>84)</sup>  
냉겨두고 으섯 ㄱ리 애 네영 가렌.”

허난,

“거짓말 아니 것느냐?”

노리팡을 콩지를 짤랸구나. 입은 옷 베런<sup>85)</sup> 콩지로 탁허게 부찌난,<sup>86)</sup> 노리각녹엔 검은점도  
이고 흰점도 이고 노리엔 콩지가 엮는 법입네다.

72) 비세 ㄱ치: 비세같이. ‘비세’는 제비 모양의 새인데 비가 올 듯할 때 잘 우는 새.

73) ㄱ난: 말하니.

74) 메기: 끝.

75) 건삼 ㄱ튼: 무성한 삼(麻)같은.

76) 지레: 키.

77) 노용삼: 늙은 삼(麻).

78) 양지: 얼굴.

79) 관디청(觀德亭): 제주시 제주목관아지 앞에 있는 조선시대의 정자.

80) 주옹아방: 향로(香爐).

81) 어욱페기: 억새.

82) 혼적: 빨리. 어서.

83) 산툃: 멧돼지.

84) 씨종존: 씨로 삼는 종자(種子)

85) 베런: 뜯어.

86) 부찌난: 붙이니.

올라가단 보난 산툯 일곱 마리 내려오람구나. 으섯 마리 죽영 애 네고 일곱 마리째엔 씨전 중 념겨두고 애 갓연 내려온다. 내려오단 보난 왕데(王竹)앗디 잇엇구나. 왕데밧디 들어간 활을 멘든다. 창을 멘든다 집이 갓연 온다.

“성님들랑 올레에 사십서. 나가 먼저 들어강 요걸 안네영<sup>87)</sup> 아무 말도 엇걸랑 우리 솔짝허게 무너사고,<sup>88)</sup> 요거 안네도 허나만 더 먹어지켄 헤민 나가 성님들 불르건 동서남북으로 놀려듭서~.”

안에 들어간,

“어머님아, 성님들 죽영 애 네영 오랏우다.”

“아이고 나 아기야, 고생허였구나. 요레 네비똥 나가라. 약 먹는다 사름보민 안똥덴.”

허난, 나오멍 총~ 손가락 춤 불란<sup>89)</sup> 창고냥 툼라똥 뉘<sup>90)</sup> 베꺃디서 안터레<sup>91)</sup> 바레보난,<sup>92)</sup> 입바이만<sup>93)</sup> 불꺃불꺃<sup>94)</sup> 칠헤똥 베게 알더레 놓앗구나.

“아이고 베여. 자라 베여. 아이고 베여. 아이고 배여~ .허나만 더 먹엇이민 낮아지켄.”

허난, 안으로 들어갓구나.

“어머님아, 어머님아, 흥번 이불자리나 게고 어머님 예, 방안이나 치웁고 어머님 머리카 흥번 빗어 안네똥 나랑 죽으쿠덴.”

허난,

“신병난디 방도 안 치우고, 이불자리도 아니 게고 머리카도 안 똥덴.”

허난,

“이년, 저년, 죽일년, 대동통편에 청똥똥에 목 걸렁 죽일 년아.”

시운데 자 수페머리 심어 이레착, 저레착<sup>95)</sup> 열려 메당 저리 두고 베게 아래 으섯 게 갓연 지봉 상모루레 올랏구나

“아이고 요 동넛 어른덜~, 우리 집이 보양 정다십서.<sup>96)</sup> 아기들이 다심티헌 게<sup>97)</sup> 아니고 어멍이 다심티헤연 우리 죽당 살아났우다. 우리 방 정다십서. 여~ 설운 성님들 살앗걸랑 동서남북으로 활발멍, 살발멍 와락치라 놀려듭서~.”

설운 성님들 와락치라 놀려 드난, 노일제데귀일이 툼은 겁질에 든는 것이 얼로 도망가고, 백장(壁穢)을 튼영 굴목<sup>98)</sup> 거기로 나오랑 통세에 강, 시운데 자 수페머리에 목을 걸련 죽엇구나. 남선빈,

“이거 무신 말이고?”

겁질에<sup>99)</sup> 둘단<sup>100)</sup> 올레에 정살남<sup>101)</sup>에 발 걸련 죽엇구나.

87) 안네영: 드러서.

88) 무너사고: 물러서고.

89) 춤 불란: 춤 발라.

90) 툼라똥: 툼어두어니.

91) 안터레: 안으로.

92) 바레보난: 바라보니.

93) 입바이만: 입가에만.

94) 불꺃: 붉게.

95) 이레착 저레착: 이 편 저 편으로 정처 없이 움직이는 모양.

96) 정다십서: ‘정다시다’는 어떤 일에 크게 혼이 나서 다시는 아니할 만큼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뜻.

97) 다심티헌: 의붓자식을 학대해서 차별하는 태도. 다슴티허다.

98) 굴목: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아궁이 바깥 부분.

99) 겁질에: 겁결에.

100) 둘단: 달리다가 .

101) 정살남: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대문(大門) 대신 가로 걸쳐 놓는 길고 굽직한 나무. =



“노일제데귀일이 똥 심어다 난 본푸세헤어보저.”

머린 비어다가 저 바당에 던져부난 똥복으로<sup>102)</sup> 설연헤엇구나.<sup>103)</sup> 머리뺨은 께어단 던져부난 통세에<sup>104)</sup> 돛도구리로<sup>105)</sup> 설연헤엇구나. 눈은야 왕방울로, 코는야 침통(鍼筒)으로, 귀는 전나기(電話機)로, 입은 마이쿠로, 니뺨은 데우살로 마련헌다. 젓통은 가지깁으로,<sup>106)</sup> 갈비뼈는 끊어당 상동냥 용얼레기로, 벳또롱은<sup>107)</sup> 끊어단 먹보말로,<sup>108)</sup> 또꼬냥은<sup>109)</sup> 끊어다가 똥몬지름으로,<sup>110)</sup> 남선비 좋아하단 건 데전복, 소전복으로 마련 헤엇구나. 벳부기는<sup>111)</sup> 끊어단 바당에 물망실이로<sup>112)</sup> 환싱을 시겼구나. 손은야 쉼시령으로, 허벅지는 통세에 지들팡으로,<sup>113)</sup> 발은야 곰베로,<sup>114)</sup> 손톱발톱은 군벳으로<sup>115)</sup> 마련을 헌다. 베설은 흘타단 베 헤는 사름덜 밧줄로 설헌한다. 도에남 방에<sup>116)</sup> 무에남<sup>117)</sup> 절국데 독독허게<sup>118)</sup> 뿌런 허공더레 뿌리난에, 모기 몸에 국다귀<sup>119)</sup> 몸에 환싱헤엇구나.

“웁서. 성님들 이제랑 우리 어멍 좃앙가게~. 오동나라 오동고을 주천강 연네똥디 설운 성님덜랑 이디서 이 물을 펴집서.<sup>120)</sup> 날랑 서천꽃밧디 강 설운 성님덜아 강 오쿠덴.”

허난, 한박이여. 족박이여. 갓당 암만 물을 퍼도 못 펴구나. 녹디생이는 서천꽃밧디 가건 어멍 살릴 곳 꺼끔 내려오란보난 물은 봉봉 헤엇구나.

“요 물 뺨따 줍서.<sup>121)</sup> 우리 어멍 신체나 좃으겐.”

허난, 한강바당 바짝 물랐구나. 들물도 쟁기고, 썰물도 쟁기는 법이라. 어멍 빼 문안 오랏구나. 말 굴을 꼳, 솔 오를 꼳, 오장육부 살아날 꼳 놔 흥남체로 삼세번 뚜드리멍,

“어머님 떼리는 메가 아니고, 어머님 살리는 메우다~.”

삼세번 떼리난~, 감태 7똥 저 머리 박박 굶는다.

“아이고 나 아기들아, 봄즙이라 너무 늦게 자졌구나~.”

“나 어머님 누워난 디 흑인들 네부리야~.”<sup>122)</sup>

가운데레 모다난 낫구나. 가운데 오름만이 높으난, 녹디생인 왕주먹을 꼭허게 들이 치난 시리구멍이로구나. 옛날은 식계날이나,<sup>123)</sup> 멩질(名節)날이나 첫 시리 치어 나민 고망 툴라다

정낭.

102) 똥복으로: 똥부기로. 밤색 조류(藻類)의 하나 얇은 바다 밑의 너럭바위에 붙어 자람.

103) 설연헤다: 마련하다. 본디 의미는 ‘뎃자리나 거적 따위를 깔아 자리를 만들다’ 여기서는 ‘마련하여’의 의미.

104) 통세에: 변소. 돼지 기르기를 겸한 변소.

105) 돛도구리로: 돌을 파서 만든 돼지 먹이통.

106) 가지깁으로: 밥그릇 뚜껑.

107) 벳또롱은: 배꼽은.

108) 먹보말로: 밥고동으로.

109) 또꼬냥은: 똥구멍은. 항문은.

110) 똥몬지름으로: 말미잘로.

111) 벳부기: 배.

112) 물망실이로: 해파리로

113) 지들팡으로: 사람이 변을 볼 때 양발을 디디도록 되어 있는 재래식 변소의 발판으로.

114) 곰베로: 곰방메로.

115) 군벳으로: 딱지조개로.

116) 도에남 방에: 복숭아나무 방아.

117) 무에남: 산호나무.

118) 독독허게: 균일하게 잘 빵는 모양.

119) 국다귀: 각다귀.

120) 펴집서: 푸고 있으십시오 .

121) 뺨따 줍서: 줄어들게 하여 주십시오.

122) 네부리: 내버리겠는가.

123) 식계날이나: 제사(祭祀)날이나.

근<sup>124</sup>) 일문전(一門前)에 올리는 법입네다. 어머님 데런 남방국에 오랏구나.

“우리 어멍 언 디 줍 자나난 돌을 좃어단 도리도리 나완 웨말치, 서말치, 큰숫, 족은숫 앓엇 구나.”

“어머님 모른 음식 먹읍네까? 모든 음식이랑 이 조왕에서 마런헤연 아침, 점심, 저녁 어머님 불 솥양 모든 밥을 험서. 식게 멩질 떼도 요기서 헤영 문전더레 상 보네민 나도 일문전에 서 상 받아나민 어멍국 조왕더레 보네쿠덴.”

헤연 마런헤여두고,

“어뎡허리 설운 큰성님은 어디 가쿠과? 큰성님은 갑을동방(東方) 청대장군(靑大將軍), 두 번째 성님은 경진서방(西方) 백대장군(白大將軍), 세 번째 성님은 남방(南方) 적대장군(赤大將軍), 네 번째 성님은 북방(北方) 흑대장군(黑大將軍), 다섯 번째 성님은 중앙(中央) 황대장군(黃大將軍), 〇섯 번째성님은 옛날 신구간법(新舊間法)<sup>125</sup>) 이제도 신구간법 잇우다. 동서남북으로 헤민 동으로, 북으로, 서으로, 남으로 혼 바퀴 뺑하게 돌명 대장군으로 초지허연 상을 받는 법이고, 일문전은 일곱체 아덜 녹디생인이 초지고, 아버지는 올레에 정살남에 발을 걸령 죽엇 이난 올레 철갈이로 상 받는 법이고, 옛날엔 정제하고 통세는 두 씨앗이라부난,<sup>126</sup>) 멀리 잇어 사 뉘영 정제서 그릇 싯쳐난 물이나, 썰 싯쳐난 물이랑 통세더레 보네곡 통세에선 버리치 귀기 하나라도 정제에 들어오민, 이게 동티살(動土煞)이 나는 법이곡, 옛날은 통세에 강 뚱 싸고 오줌 싸고 할 때랑 통세 뚱오줌 싸레 가당 지들팡 알에 빠정 죽으민, 옛날은 뚱떡 벅 게 헤영 벅사름 맥여사 멩(命)과 복(福)을 이영 산덴 험니다. 일문전 하나님 난산국에 본을 풀엿습니다.

#### 문전본풀이>비뉘

제주큰굿보존회 사무실에 성주님, 오방신장님 앞문전은 여레뉘 밧문전은 스물여덜 일르릭 데법천황(大法天王) 하나님, 초허루는 초덕조왕, 초이틀은 이덕조왕, 초사흘은 삼덕조왕 할마님 혼 달 앓양 옥황(玉皇)에 세 번 올락 네력 허멍, 이 조왕 소도리<sup>127</sup>) 행 옥황에 올르게 맏서. 옥황에 소도리 이 조왕에 네리게 맏서. 까스버너에나 전기렌지에나 이 딘 전기누전도 뉘게 허지 맏고, 터에 터신도 터신 운동허게 맏서. 지신 운동허게 하지 맏서. 올레주목지신님도 이 올레로 급헌 일을 모두 막아 건 오늘 열두 본풀이 마지막으로 헤엿습네다. 어뎡헌 일로 이 거 멘날 메칠 이런 소리 나암신고 영 허지 맏양, 저 올레로 주잔들랑 네어당 이 올레 안에, 올레 베꿏디, 이 터에, 이 터 베꿏디에 노는 이런 임신들 많이 많이 열두 소잔입네다. 자〇〇 이 즈손도 열두 본풀이 기록 냉기고, 케이씨테레비에서도<sup>128</sup>) 이 즈손(子孫) 오랑 이 연구자료 갖영 가건 연구 자료도 잘 냉기고, 이 즈손들 비 온 날, 눈 온 날, 안게 낀 날 브름 분 날 엿 이 운전 헤영 한라산을 가운데 중심 두영, 밤낫으로 운전(運轉)뉘곡 연구허레 뎡기명 촬영허레 뎡기명, 거릿데장, 질데장 녁 날 일, 혼 날 일, 다칠 일도 모두 막아주고, 큰굿보존회 사무실에서도 이 즈손들 오랑가는 질에 다 굿인 일이랑 모두 막아 먹을 연, 입을 연 네와 줍서예~.

124) 툇라다근: 툇어다가.

125) 신구간(新舊間): 대한(大寒) 후 일부터 입춘(立春) 전 일까지의 기간.

126) 두 씨앗이라부난: 처첩사이여서. ‘시앗’은 남편의 첩.

127) 소도리: 고자질.

128) 케이씨테레비에서도: KCTV에서도.